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서

[시청자 의견청취용 요약문]

2026. 6.



울산문화방송(주)

□ 설립목적

- ‘어린이에게는 꿈과 이상을, 젊은이에게는 생활의 의욕을, 노인들에게 즐거움을’이란 설립목적 및 창사 이념으로 1967년 11월 30일 울산민간방송주식회사 설립을 발기하고, 동년 12월 11일 창립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 성립을 완료한 후 다음 해인 1968년 4월 10일 정규방송(AM)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운영방향

- 공영방송으로서 방송의 공정성, 공영성 및 지역시청자의 알권리를 최우선으로 지향하고, 광고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신사업 발굴 및 자회사를 활용한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증대로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경영이익이 공영성을 담보하고 고품질 UHD프로그램 및 뉴스 제작이 가능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방송사를 운영하고자 함

□ 방송현황

- 약 109만 인구의 광역시 울산에 최초로 설립된 방송사인 울산문화방송주식회사는 DTV, UHDTV, 제1FM, 제2FM 등의 종합방송 매체와 정예화 된 73명의 방송 인력으로 울산광역시 전역과 경남, 경북 일부지역에 방송전파를 송출하면서 ‘지역문화의 창달’, ‘건전한 여론 형성’,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와 지역 최고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목 표

- 울산광역시는 국내 최대의 중화학 공업단지를 시작으로 발전하게 되어 그로 인해 얻게 된 ‘공해도시’, ‘문화 불모지’ 등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환경친화도시’, ‘문화도시’로 변모시키는데 울산MBC가 앞장섬으로써 울산시민들에게 지역 최고의 방송사로 각인된 위상을 계속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확보하여 뉴미디어 방송시대에도 변함없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보장, 시청자의 알권리와 권익신장 실현을 궁극적 목표로 함

□ 울산문화방송(주) 주요연혁

1967. 11. 10	울산민간방송주식회사 무선국 가허가 취득 (주파수 1,020KHz / 출력 10KW / 호출부호 HLSS)
1968. 3. 14	호출부호 HLAU로 변경
4. 10	개국 (AM 방송)
1969. 3. 6	회사명을 영남방송주식회사로 변경
7. 7	주파수를 850KHz로 변경 (식별부호 MBC)
10. 1	울산문화방송(주)로 사명 변경
1983. 9. 1	FM방송 개국 및 TV출력 증강 (98.7MHz / 출력 1KW)
1985. 9. 1	TV연주소 개설 (UHF CH 33)
1986. 4. 10	신사옥 준공 (중구 학성동 現사옥)
1999. 11. 1	표준FM방송 개국 (주파수 97.5MHz)
2001. 5. 8	인터넷 방송 개시(VOD, AOD 서비스 개시)
2012. 3. 5	HD 대형중계차 도입
2017. 9. 28	UHDTV방송 개국 (CH 29)
2023. 5. 8	AM 라디오방송(주파수 84.6kHz, 출력 10kw) 폐국
2026. 4. 10	창사 58주년 기념일

□ 대표자

성명 (직책)	임명일	임기	주요약력	비고
유해진 (대표이사)	'24. 03. 19	'24. 03. 19 ~ '27. 03. 18	○ '96년 MBC PD 입사 ○ '21년 MBC 시사교양본부장 ○ '24년 울산MBC 대표이사 사장	-

□ 편성책임자

성명 (직책)	임명일	임기	주요약력	비고
설태주 (방송제작국장)	'26. 05. 01.	'26. 05. 01. ~	○ '97년 울산MBC 입사 ○ '13년 울산MBC 탐사보도부장 ○ '20년 울산MBC 보도국장 ○ '26년 울산MBC 방송제작국장	-

2

재허가 신청 방송국 현황

□ 재허가 신청 방송국 현황

구분	텔레비전		라디오					DMB	합계
	UHD	DTV	단파	AM	표준FM	FM	소계		
전체 방송국	1	1	-	-	-	2	2	-	4
재허가 신청 방송국	1	1	-	-	-	2	2	-	4

□ 재허가 신청 방송국 세부 현황

방송국 명칭 (방송국 종별)	매체구분	방송사항	주요 방송구역	호출부호	주파수
울산MBC UHDTV방송국 (UHDTV)	지상파방송 UHDTV	UHD 텔레비전방송	울산광역시	H LAU-UHDTV	563MHz (CH29)
울산MBC DTV방송국 (DTV)	지상파방송 DTV	디지털 텔레비전방송	울산광역시 및 양산시	H LAU-DTV	593MHz (CH34)
울산MBC 제1FM방송국 (표준FM)	지상파 라디오방송	정보전달 위주의 FM 라디오방송	울산광역시, 경주, 양산시	H LAU-SFM	97.5MHz
울산MBC 제2FM방송국 (음악FM)	지상파 라디오방송	음악방송 위주의 FM 라디오방송	울산광역시, 경주, 양산시	H LAU-FM	98.7MHz

구분	주요 내용
1.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실현	실적 ■ <울산을 들어라, 울트라>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과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하고, UHD 다큐멘터리 <바실라>, <반구천의 암각화>, <노동의 이동>, <안테바신>, <딜레이 오브 더 게임> 등을 제작하여 역사·문화·환경·사회통합 의제를 심층 조명함 ■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의 뉴스와 「체인지업」 등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노력함 ■ 시민제보, 문자, SNS, 유튜브, 시민패널 참여 등을 확대하고 <사춘기 전용채널 ON AIR>, <울트라>, <퇴근길 톡톡> 시민참여 코너 등을 통해 시청자 참여를 활성화함 ■ 태풍, 집중호우,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특보와 행동요령을 제공하여 공영방송의 재난방송 역할을 수행함 ■ <울산뮤직페스티벌>, <간절곶해맞이>, <울산미래박람회>, <청년울산대장정 U-Road>, <울산어린이날콘서트>, <중구문화이음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지역문화 진흥과 시민 참여 확대에 기여함 ■ <퇴근길 톡톡> 을 통해 지역 현안과 정책, 경제·사회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함
	계획 ■ 지역민 중심의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사업 개발 지속 ■ 자체 심의 시스템을 강화하여 심의 무위반 달성 계획 ■ 보도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한 여론형성 및 상생화합을 이끌 수 있는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제작 ■ 각종 선거관련 보도에 있어서는 사전, 사후 자체 모니터링 강화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대의 가치로 삼음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확대로 다양한 계층의 관심사와 시청자의 권익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 ■ 가장 지역적이면서 세계적 가치를 가진 방송 소재를 발굴해 글로벌 무대에도 통하는 품질 높은 지역 프로그램과 뉴미디어 물을 제작하여 지역방송의 국제화와 해외 수출 판매에 노력 ■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기여 ■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콘텐츠다각화 추진

구분	주요 내용
2. 방송의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실적 ■ <안테바신>, <노동의 이동>, <사춘기 전용채널 ON AIR>, <지옥폰> 등을 제작하여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사회통합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새삶스RUN 울산」 등을 통해 포용적 공동체 문화 조성에 노력함 ■ 취약계층 상생을 위한 복지의 일환으로 <희망2024나눔캠페인>, <희망2025나눔캠페인>을 시행하고 모금 성금을 기탁함 ■ 건강한 정주 여건을 위한 환경 보호 및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산해진미 플로깅(Plogging) 캠페인>과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 등을 시행함 ■ UHD 다큐멘터리 <바실라>, <반구천의 암각화>, <충(蟲)의 전쟁> 등을 제작하여 지역 역사문화와 환경자산의 가치를 알리고, <서덕출 창작동요제>, 울산서머페스티벌, 울산뮤직페스티벌 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함 ■ <울산대학교미디어크루 운영>, <미래내일일경험인턴십사업> 참여, <청년 잡JOB고GO>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 청년 인재 육성과 방송·뉴미디어 분야 직무역량 강화에 기여함 ■ <점프 울산>, <플레이볼! 울산웨일즈>, <전국체전도전> 다큐를 제작하고 전국배드민턴대회, 전국산악대회 등을 개최하여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발전에 기여함 ■ <울산미래박람회> 개최를 통한 지역 청년 및 인재들의 참여기회 마련
	계획 ■ 지역 다문화인을 초청, 각국의 문화를 교류하고 이해하는 ‘울산글로벌 페스티벌’ 개최 ■ 희망나눔캠페인 등 어려운 이웃 기획 보도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 교통사고 예방,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통한 지역민 안전 도모 ■ 대한민국의 17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반구천 암각화>, 한·중·일 3국의 역사적 대립의 장소에서 호국 유산이 된 <울산 왜성> 전투를 재현한 SI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등으로 문화재 보존 발전 ■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주제로 개최되는 ‘울산 미래박람회’를 통해 신기술 분야를 연구하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울산의 젊은 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 마련 ■ 공익행사와 다양한 문화행사 진행 시 울산의 자영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지역 푸드 트럭, 플리마켓 등 적극 활용

구분	주요 내용
3.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실적	■ 방송문화진흥회 공모 선정작 <쌈진강>과 라디오 페이크 다큐멘터리 <엑소더스: 지방대탈출> 등을 통해 청년, 지역소멸, 지역 간 교류와 공동체 문제를 새로운 형식으로 접근하며 콘텐츠 다양성과 공익성을 확대함 ■ <울산을 틀어라 울트라>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길, 다름이 편견이 되지 않길 - 예술에는 장애가 없다>, <울산에서 무장애 힐링여행, 어떠세요?> 등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향유권과 이동권을 조명하고 포용적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 ■ 울산형 인구 유출 원인 심층 보도: 20대·30대 청년층이 울산을 떠나는 근본적 원인(일자리 미스매치, 문화·의료 인프라 부족)을 다각도로 취재한 연속 기획 뉴스를 뉴스데스크에서 방송 ■ 보도특집 UHD 다큐멘터리 ‘노동의 이동’(2부작): 2025년 11월 방송한 이 특집 프로그램은 울산 지역 청년 인구 유출과 다문화 이주 노동자 유입이라는 인구 구조 변화를 다룸으로써, 단순한 노동인구의 세대별 통계를 넘어 산업 전반의 인력 이동 실태와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 여건 문제를 심층 분석하여 지역 사회 갈등 통합과 상생의 길을 모색함 ■ <농업이 미래다>, <작은 국밥집 사장님의 따뜻한 원칙>, <빵지순례>, <디저트 전성시대> 등을 통해 지역 농업인과 소상공인을 조명하고, <삼동초등학교 입학식>, <좌충우돌 5남매 육아일기>, <울산-구마모토 청소년 교류> 등을 통해 교육과 공동체의 가치를 소개 ■ <퇴근길 토크>은 지역민들의 퇴근 시간대에 맞춰 지역사회 현안과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대표 공익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뉴스 따라잡기>, <한 주간의 이슈>를 통해 지역 정치·사회·행정 현안을 심층 분석하고 지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함. <기부앤티이크>를 통해서도 지역 소상공인과 나눔 문화를 연결하고, <우리동네 리포터>,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를 통해 시민 참여형 방송을 확대 ■ <확 깨는 라디오>는 평일 오후 2시 시간대에 편성하여 나른한 오후 시간대 지역민들에게 활력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대표 오락·교양 프로그램으로서 <마음정원>, <궁금타파, 아그래요?>, <울산을 노래하자>, <시인의 마을>등의 코너를 통해 정신건강, 의료, 문화예술, 역사, 지역정체성, 문학콘텐츠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확대함 ■ 유튜브 채널과 SNS를 활용하여 방송 프로그램 재가공 콘텐츠, 쇼츠멘터리, 디지털 아카이브 콘텐츠를 지속 제작하

구분	주요 내용
	고 <시로 복원하는 그 시절>, <그때 그 시절! 울산의 어린이들은?>등 지역 기록 콘텐츠를 재조명함으로써 세대 간 공감과 지역 정체성 확산에 기여함 ■ UHD 다큐멘터리 <안테바신>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족의 정착 과정을 밀착 취재하고 다문화 공존의 가치를 조명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최우수상을 수상함 ■ <땀으로 쓴 순간, 울산의 이름으로>를 제작하여 전국체전에 출전한 울산 대표선수들의 도전과 성장을 기록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함 ■ <작전명 청춘 - 푸른 울산을 걷다, 유로드 7박8일의 여정>을 통해 청년울산대장정 참가자들의 성장과 공동체 의식을 기록함
	계 획 ■ 뉴스의 질적인 부분 향상 및 지역의 이슈에 대한 특종, 단독보도, 심층취재, 기획취재 시리즈 등으로 지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노력 경주 ■ 뉴스에서 시간적인 한계로 다루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 특집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보다 깊이 있고 심도 깊은 취재 이행 ■ 지역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며, 사회적 문제점이나 궁금증을 풀어주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아이템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 : <울트라>, <확 깨는 라디오>, <퇴근길 토크> 등 ■ 소재의 다양화, 기술의 최적화(UHD제작/송출)로 명품 다큐멘터리 구현 ■ 가장 지역적이면서도 세계적 가치를 가진 지역 문화, 인물, 환경 등에 관한 소재들을 발굴하여 글로벌 우수 다큐멘터리로 제작 방송 ■ 장애인방송 법정 비율 준수 및 소외계층을 다룬 코너와 프로그램 제작 ■ 뉴스 보도에서는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특집 연속기획 뉴스 제작 활성화로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의 역할 추진 ■ 지역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매거진 프로그램 등 데일리 편성으로 시청자들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참여 코너도 확대

구분		주요 내용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실적	■ ‘시파트’, ‘뉴미디어파트’ 신설 조직 개편과 함께 뉴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강화하여 지역방송의 공적역할 수행 ■ 2021년부터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TF조직(미래전략추진단)을 운영하여 미래의 먹거리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하였고, 2026년에는 신사업파트 조직을 신설하여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유형 자산의 개발 관련 프로젝트도 추진 ■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 가능하도록 안정적으로 순유 동자산 100억 원 이상 유지 중 ■ 자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기 자금운용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자금운용계획과 자금운용실적을 반기별로 자금운용위원회에 보고 ■ 안정성을 확보를 제1원칙으로 하여 전체 금융자산의 70% 이상을 1금융권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고, 주식형 펀드 및 채권 등 시장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자산은 전체 금융자산의 30% 이하 유지 중 ■ 방송기술부문은 기존 방송용 Tape 기반에서 파일 기반으로 제작/송출 시스템 환경 전환
	계획	■ 울산MBC 3.0 시대 준비(신사옥 또는 사옥 리모델링 준비): 미래 지향적인 스마트 방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신사옥 이전을 위해 안정적인 재무 전략을 구사 ■ AI 기반 업무 효율화 및 지역 거점 비즈니스 다각화: 조직 내 최신 기술을 이식하여 생산성을 혁신하고, 광고 매출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수익 파이프라인 구축 ■ 기성세대와 다른 MZ세대, MZ노동조합의 고유한 직업관 및 가치관(형평성이 지켜지는 환경, 자아실현이 가능한 직장환경, 고유한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 회사의 비전과 개인의 성장이 일치되는 환경 등)을 인사관리에 반영하여 인력 운영 ■ 뉴미디어 방송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문교육에 투자: 방송 산업의 변화 및 새로운 트렌드 등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외부 강사 초청하여 사내 교육 실시 ■ 수익원 다변화 및 상시 비용 절감을 통해 안정적 현금흐름 창출: 비용과 예산의 통제로 불필요한 경비 집행에 대한 절감 방안 실시 ■ UHD 뉴스부조 전환: 2028년 노후화된 HD 뉴스부조 시스템을 UHD기반으로 전면 전환하고 UHD/HD 동시 방송 제작 환경 구축으로 이중 운용 체계 마련

구분	주요 내용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실적 ■ 직전 재허가 기간(‘24.1.1~’26.5.31) 동안 방송법 및 관계법령 위반사실 없음 ■ 공동제작·교류 프로그램 편성 확대: <테마기행 길>, <어영차 바다>, <살맛나는 세상>, <인생굿샷> 등을 편성하여 지역방송과 외주제작사 간 콘텐츠 공유 및 상생협력 추진 ■ 지역 콘텐츠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MBC 및 외부 제작 파트너와 협력하여 우수 콘텐츠 공동 활용 및 지역 의제 확산 ■ 외주제작사 및 프리랜서 참여 확대: UHD 다큐멘터리, 문화행사, 디지털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지역 외주제작사와 전문 프리랜서 참여 확대 ■ 공정한 외주 계약문화 정착: 표준계약서 기반 계약 체결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제작환경 조성 ■ 재난정보 제공 및 공공서비스 강화: TV·라디오·유튜브·SNS를 연계한 실시간 재난정보 제공과 공익 콘텐츠 제작을 통해 지역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임 수행 ■ 지역 인재 육성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유니스텔라, 서덕출 창작동요제, K-POP 사관학교 등을 운영하여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 인재 육성에 기여 ■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시청자 권익 확대: 주요 행사 및 방송 콘텐츠를 유튜브 생중계, 다시보기, 쇼츠 콘텐츠 등으로 제공하여 시청자 접근성 향상
	계획 ■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에도 방송법 및 관계법령 무위반 달성 노력 ■ 외주제작사, 프리랜서, 중소방송사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건강한 지역 미디어 생태계 조성 ■ 지역 기반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해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방송수익의 사회 환원 및 공익적 가치 실현 ■ 지역 소외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나눔 사업 참여 확대 ■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콘텐츠 제작 추진 ■ 산업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방송 제작 참여자의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 ■ AI, 데이터 기반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 환경에 대응한 방송혁신 추진

구분		주요 내용
6.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실적	■ 태풍, 집중호우, 폭염, 한파, 산불 등 자연재난 발생 시 TV 뉴스와 라디오, 자막방송,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상 특보와 시민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달함(예: 2024년 제9호 태풍 ‘종다리’, 2024년 제14호 태풍 ‘플라산’, 역대 최악의 피해를 준 2025년 3월 울주군 온양읍·언양읍 대형 연쇄 산불, 2026년 1월 울주군 삼남읍 봉화산 산불 등) ■ 2024년부터 <산불 행동요령>,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산사태 5가지 안전수칙>, <산행안전 행동요령>, <승강기 사고 행동요령>, <식중독 국민안전수칙>, <심폐소생술 행동요령>, <여름철 물놀이 국민안전수칙>, <지진 국민행동요령>, <집중호우 국민행동요령>, <침수 행동요령>, <태풍 국민행동요령> 등을 제작·방송하여 자연재난 및 생활안전 분야 예방 활동을 강화함 ■ 2025년에는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안전수칙>, <안전한 산행 요령>, <국가지점번호판 활용법>, <항공기 재난 시 기내수화물 안전요령>, <어선 선박사고 안전요령>, <미아 발생 예방과 대처법>,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산불 행동요령> 등 생활밀착형 안전 콘텐츠를 제작·방송하여 시민들의 재난예방 의식을 높임 ■ 2026년부터는 <다중운집 인파사고 대처법>, <주택화재 발생 시 초동대처법>, <가정 내 가스폭발사고 예방법>, <정전 발생 시 대처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화학물질 유출사고 시 행동요령>, <원유수급 위기 에너지 절약법>, <고속열차 사고 대처법>, <가축전염병 예방수칙>, <가뭄 시 생활 행동요령> 등을 제작·방송하여 사회재난과 산업재난 분야 예방 활동으로 확대 방송함
	계획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난통보시스템,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발생 즉시 재난정보를 확보하고 TV 자막방송과 라디오 긴급방송을 신속하게 실시함 ■ TV·라디오·유튜브·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연계하여 재난 발생 초기 단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실시간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전달의 정확성과 접근성을 강화 ■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본부, 울산소방본부, 울산경찰청, 울산해양경찰서, 기상청, 원자력안전 관련 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정보를 교차 확인하고 검증된 내용만 방송 ■ 주요 재난방송 종료 후 신속성, 정확성, 정보전달 효과 등을 자체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난방송 매뉴얼과 교육에 반영하여 재난방송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함